

2012여수엑스포 결정

“10년 노력 ‘여수의 꿈’ 이뤘다”

한국 예상보다 많은 표차 모로코 제압
숨죽인 전자투표 15분...여수 낭보 환호

■ 피말리는 투·개표 순간

26일 오후 9시 30분(프랑스 현지 시각·한국시간 27일 새벽 5시 30분).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시작된 순간 파리 ‘팔레 드 콩그레’ 밀딩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장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러넘쳤다.

한국 수총리와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석 여수시장 등 한국 대표단은 손에 땀을 끈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렸다. 여수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한국에서 날아온 300여명의 국민응원단도 총회장 밖에서 ‘코리아, 여수’를 연호하며 총회장에서 낭보를 날아들기를 기원했다. 한국 대표단의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총회장 바로 옆 ‘메르디앙 에투얼’ 호텔에서도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관계자들과 교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투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폴란드, 한국, 모로코의 순으로 진행된 마지막 시험, 즉 프레젠테이션은 모두 끝났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누구랄 것 없이 대표단 모두의 얼굴에 비장감이 흘렀다. ‘진인사대 천명’의 순간이었다.

10년동안 유치노력을 기울였지만 140개 BIE 회원국 대표들이 전자투표로 개최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는 프레젠테이션은 달리 투표의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시간이 흐를수록 대표단과 응원단의 긴장감은 높아져만 갔다. 총회장 밖은 한국 응원단의 합성소리와 함께 경쟁 후보국인 폴란드와 모로코 관계자들의 응원소리가 커지면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국가별로 3명씩의 대표가 입장하며 이를 가운데 한명에게만 버튼 선택권이 주어졌다. 1차 투표가 끝나면 전광판에 자동으로 득표수를 집계되며, 전체 회

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한 국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2차 투표에 들어가 최다 득표국을 가리게된다.

전체적으로 이날 행사는 계획보다 두시간 이상 지연됐다. 2015년 박람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와 이탈리아가 BIE 대표들을 상대로 실시한 프레젠테이션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는 새벽 5시가 넘어서 시작됐다. 1차 투표 결과는 한국 여수 68표, 모로코 탐헤르 59표, 폴란드 브로츠와프 13표 순으로 여수가 1위를 차지했다. 1위였지만 불과 9표차였다. 폴란드 지지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승부였다. 1차 투표 직후 2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여수 77표, 탐헤르 63표’, 14표차의 승리였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여수시민, 전남도민들의 열정이 어울린 승리였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총회장은 한국 대표단의 환호와 감격에 뒤틀렸으며, 총회장 밖에서 낭보를 기다리던 국민응원단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총회장 주변에는 80여 명의 한국 기자단과 함께 모로코와 폴란드는 물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신문·방송·통신사 기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외신 기자들은 그동안 언론에서 발표된 판세 분석과 해당국가 고위인사들의 전망,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토대로 특정국가의 승리를 짐작기도 했다. 한국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외신기자들은 BIE총회 결과를 긴급 타전하며, 한국 기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유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유치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모로코가 한국의 지지기반인 중남미 회원국을 집중 공략,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한국정부는 모로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 프랑스의 외교력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고 말했다.

/파리= 흥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하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린 27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 앞에서 여수 시민들과 교민들이 태극기와 여수박람회 로고가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여수 응원전을 벌이고 있다.

/파리=광주·전남사진기자단



27일 새벽 5시 50분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2012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밤샘 응원전을 펼치던 3천여명의 시민들이 여수 개최가 확정된 순간 여수박람회 로고가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위직당기자 jrw@kwangju.co.kr

한총리·박지사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 밤샘 여수 시민들 아침까지 축포·열광

■ 엑스포 여수 결정 이모저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27일 새벽 전국은 ‘여수’를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 2002년 중국 상하이에 분배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이후 5년만에 마음껏 외쳐보는 환희의 외침이었다.

특히 ‘유치기원 철야응원제’가 열린 여수시청 앞 광장을 비롯, 여수시내 곳곳에서 수만명의 여수시민들이 ‘박람회 유치’라는 낭보를 기원하며 꼬박 하루 밤을 지샜다. 이날 새벽 여수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여수시내는 떠나간 듯한 환호성이 뒤틀렸다.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낙암신도시 도청 앞 광장에서도 이날 새벽 0시부터 유치기원 행사가 열렸고,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축포발사와 축하공연이 아침까지 이어졌다.

○…여수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제142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 주변에 있던 한국 현지대표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총회장 안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강무현 해수부장관, 조종표 외교부 제1차관,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석 여수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김재철 박람회 유치위원회장, 정봉구 명예유치위원장 등 민간 추진기구 대표 등 한국대표단은 ‘여수, 고래’가 발표되는 순간, 서로 얼싸안으며 유치의 감격을 만끽했다. 행사를 주변에서 유치 낭보를 기대하던 전남도, 여수시 대표단은 엑스포 로고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울렸다.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는 밤새 축제 분위기였다. 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순간, 여수시청 광장을 비롯, 여수시내 곳곳에서는 “여수 민족” “장하다, 여수”를 외치는 합성소리로 가득했다. 수십 밤의 폭죽이 더지면서 여수 밤 하늘은 오색찬란한 불꽃으로 물들었고, 시민들은 불꽃 향연에 환호성을 보냈다.

26일 오후 6시부터 여수시청 광장에 몰려든 3천명의

시민들은 “우~와 드디어 됐다. 우리가 승리했다”며 유치의 기쁨을 나누었다. 시민들은 시청 광장에 마련된 가로 3m·세로 4m 크기의 대형 화면에 ‘여수 유치확정’. 시민 여러분의 승리’라는 자막이 뜨자 대회유치기와 태극기, 막대풍선을 흔들며 환호를 감추지 못했다.

시민 정승현(42·여수 문수동)씨는 “승리를 예감했다. 뭘 듯이 기분이 좋다”면서 처음 본 시민들과 어깨를 겸고 감격을 나누었다. 시청 광장은 이날 둘이 틀 때까지 감격과 기쁨의 물결로 넘실거렸다. 농악대의 풍물소리는 한껏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여수 공무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수시 유치지원과와 기반조성과 직원 40명이 모여 있던 청사 3층 종합상황실에서도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두인 유치지원과장은 “실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풀린다”며 환호했고, 김재곤 기반조성과장도 “여수시민의 승리”라며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시민들 사이에선 여수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수시 최오주 부시장은 “여수의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저녁부터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는 ‘유치기원 철야 응원제’가 열려 유치 열기를 고조시켰다. 풍물과 공연·여수 우도 풍물굿 보존회 ‘길놀이’·댄스 퍼레이드·모듬 복 공연 등 응원 퍼포먼스 1·2·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여수시 서강동 주민 30명이 한국과 모로코의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여수의 유치 성공을 기원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재순)은 27일 성명을 통해 “여수가 5년 전 2010년 엑스포 개최권을 중국 상하이에 넘겨주는 아픔을 겪었지만 민관이 하나가 돼 2012년 엑스포를 유치하는 괴리를 이룬데 대해 축하드린다”며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는 대한민국의 승리요, 전남 도민, 여수 시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는 밤새 축제 분위기였다. 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순간, 여수시청 광장을 비

었다. 여수시내 곳곳에서는 “여수 민족” “장하다, 여수”

를 외치는 합성소리로 가득했다. 수십 밤의 폭죽이 더

지면서 여수 밤 하늘은 오색찬란한 불꽃으로 물들었고,

시민들은 불꽃 향연에 환호성을 보냈다.

26일 오후 6시부터 여수시청 광장에 몰려든 3천명의

2010 엑스포 상하이에 패배후 유치 재추진

2004년 12월 국가계획 확정후 본격 유치전

■ 2012여수엑스포 유치까지

여수엑스포 추진 일자

▲ 1996. 9. 4 전남도 정부에 2010엑스포 전남 유치 건의

▲ 1997. 5. 31 정부 전남 엑스포 유치 공식 발표

▲ 1999. 6. 14 2010 여수엑스포유치 국제계획 확정

▲ 2001. 5. 2 BIE에 2010엑스포 개최 신청

▲ 2002. 12. 3 2010 여수엑스포 중국 상하이에 패배 유치 실패

▲ 2003. 1. 15 경제장관회의 2012여수엑스포 재추진 결정

▲ 2004. 12. 14 2012여수엑스포 국가계획 확정

▲ 2006. 5. 22 BIE에 유치 신청

▲ 2007. 2. 8~9 제1차 국제심포지엄

▲ 2007. 4. 9~12 BIE 현지 실사

▲ 2007. 9. 12~14 제2차 국제심포지엄

▲ 2007. 11. 27 BIE 142차 총회 2012엑스포 개최지 여수 확정

적인 유치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어 같은 12월 7일에는 국회에서 2012여수엑스포 유치 지지 결의안이 통과됐다. 올들어 지난 4월 9~14일 서울과 여수에서 실시된 BIE실사를 통해 여수엑스포 준비상황이 ‘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9월 12~14일 제2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러나 2002년 12월 3일 제132차 BIE 총회에서 우리나라(여수)는 중국(상하이), 러시아(모스크바), 멕시코(케레타로), 폴란드(브로츠와프) 등과 2010엑스포 유치전을 벌였으나 4차 결선 끝에 중국 상하이에 아깝게 패배했다.

2010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2003년 1월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12 여수엑스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04년 12월 14일 2012여수엑스포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했다.

이어 2006년 5월 22일 BIE 142차 총회 2012엑스포 개최지 여수 확정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